DOI : https://doi.org/10.24825/SI.74.5

〈신과 함께〉, 원작 웹툰과 각색작 영화의 서사 비교 연구*

– 주인공 '진기한'과 '김자홍'을 중심으로

송태미**

【 차 례 】

Ⅰ. 들어가며
Ⅱ. 웹툰 〈신과함께-저승편〉의 사회비판적 서사
1. 이승과 저승
1) 저승 - '메타 이야기'의 공간
2) 이승 - '삶'의 공간, '이야기'의 공간
2. '평범한 김자홍'과 '비범한 진기한'
3.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은유
Ⅲ. 영화 〈신과 함께-죄와벌〉 : 원작과의 메시지 충돌 양상
1. '착한 김자홍'의 가족 서사
1) 각색작에서 전면적으로 변형된 서사
2) 진기한, 김자홍과 함께 사라진 메타이야기
2. 원작이 비판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강화하는 각색작
Ⅳ.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웹툰 <신과 함께>의 독자들이 영화 <신과 함께>의 각색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항의했던 문제, 곧 진기한, 김자홍 캐릭터의 삭제와 관련하여 두 캐릭터의 존재가 원작과 각색작의 서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원작 웹툰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259)

** 단독저자,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tmsong@knu.ac.kr

은 전통신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개인의 품행에 가해지는 저승의 윤리적 심판을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한 비판으로 이동시키면서 개인의 윤리성에서 사회구조의 윤리성으로 메시지를 전환시켰다. 전통적인 저승관에 나타난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복시킨 이 작품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선악의 의지적 선택 앞에 선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자본주의 기계를 작동시키는 부품같은 존재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가해자 사회와 피해자 개인의 구도로 전환시킨다. 그런데 각색작 영화 <신과 함께>에서 서사의 메시지는 다시 개인의 윤리성으로 되돌려진다. 원작 웹툰은 가족주의와 같은 장치가 개인을 '죄인'으로 생산하는 데에 이용되는 양상을 보여준 바 있는데, 각색작은 원작이 비판적으로 보여준 가족주의 서사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작과 아이러니한 관계를 맺는다.

열쇠어 : 신과함께, 각색, 메타이야기, 스토리, 데이터베이스,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기호, 기계, 자본주의, 가족주의

Ⅰ. 들어가며

웹툰 <신과 함께>[1]는 2010년과 2012년 사이 연재 기간 내내 상위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흘렀지만 이 작품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틈이 없었다. 각색을 거쳐 영화로 재탄생된 <신과 함께>[2] 시리즈(2017, 2018)가 개봉 당시 연이어 놀라운 흥행을 기록하면서 원작의 인기를 능가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에서도 국내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린 데다가 이후로는 웹툰 원작 영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작 웹툰과 영화 모두 흥행에 있어서는 이례적인 성취를 거둔 것이 확실하지만 작품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원작 웹툰은 각종 만화상을 휩쓸며[3] 흥행 수준에 버금가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반면 영화

1)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연재되었던 주호민 작가의 웹툰. 2017년에 앙코르 웹툰으로 재연재되었다.
2) 시리즈 1편 <신과 함께-죄와벌>(2017), 2편 <신과 함께-인과연>(2018)
3) 2010 독자만화대상 온라인 만화상 1위, 2011 독자만화대상 대상, 2011 부천만화대상

의 경우 각색을 둘러싼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을 감당해야 했다. 각색을 거쳐 완성된 시나리오는 원작 스토리의 탁월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각색이 원작을 훼손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4] 이러한 논란은 개봉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1편 <신과 함께-죄와벌>의 예고편 티저가 공개된 직후 원작 독자들로부터 격한 항의 댓글이 쏟아졌고 이는 제작진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티저 예고편 공개 후 쏟아지는 악플에 개봉일까지 우울증 약으로 버텨야 했다"[5]는 영화 제작자의 회고를 통해 당시 열성 팬덤을 포함한 원작 독자의 규모와 그들이 각색 결과에 대해 보인 부정적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수많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항의한 지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원작의 '진기한' 캐릭터가 사라진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원작의 주인공 '평범한 회사원 김자홍'을 '영웅 소방관 김자홍'으로 둔갑시킨 점이다.

원작 독자들의 빗발친 항의로 제작진이 겪었던 고충은 영화 개봉 후 거둔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흥행을 두고 작품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흥행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도 전술한 원작 독자들의 문제 제기는 달라지지 않았고 많은 관객들로부터 '흥행을 위한 억지스러운 신파'[6]라는 혹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파성' 논란은 평론에서도 이어졌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모성의 목소리조차 박탈한 뒤 그 크신 사랑만을 돌림노래로 부르는 공업적 최루법"[7]이라고 평했는데 이동진의 이 평은 왓챠피디아에서 본 영화에 대한

우수이야기만화상, 2011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등 다수 수상.

4) 이태훈, 「웹툰의 영화화 트렌드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중예술성 분석연구(영화 "신과 함께(2017)"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2018, 391~398쪽.

5) 「영화 <신과 함께> 진기한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나?」, 『딴지일보』, 2018.1.22.

6) 박재연, 「<신과함께>의 신파성과 한국적 신파 현상 – 웹툰 <신과함께-저승편>과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에 나타난 신파성 비교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2020.4.26.

7) 이동진 평론가, 왓챠피디아, 2017.

평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태훈도 “흥행을 위한 관객의 감동 포인트를 ‘신파’라고 불리는 전통적 가족 시스템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8] 며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위트있게 보여준 원작을 잘 반영하지 못한 각색임을 지적한 바 있다.

웹툰 장르에서 원작이 갖는 중요성이 대단히 크고 영화 역시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가운데 가장 큰 성취를 이루어낸 사례인 만큼 작품 각각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물론이고 각색[9] 자체에 대한 논의로 범위를 좁혀 보더라도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확인된다.[10] 강미선[11]은 매체전환 과정에서 원작의 서사와 영화의 서사를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던 원작의 주제가 어떻게 ‘가족간의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이행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박재연[12]은 ‘신파’의 개념을 검토하여 이 개념이 갖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고찰하고, 이어서 원작과 영화의 비교대조를 통해 원작 웹툰에서는 미미하게만 나타났던 ‘가족’의 정서가 영화에서는 강력한 가부장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신파성을 강화시켰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드물지만 각색이 원작 못지 않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서성은[13]은 영화의 각색 전략이 원작의 독자들과 원작을 모르는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이는 흥행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평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유의미한 분석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었음에

8) 이태훈, 「웹툰의 영화화 트렌드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중예술성 분석연구-영화 “신과함께(2017)”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5호, 2018.5.28.
9) 각색, 매체전환
10) 서성은(2018), 박재연(2020), 이태훈(2018), 강미선(2021), 주민재(2019), 김진철(2021) 외 다수.
11) 강미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원작의 비교 연구 – 웹툰 <신과함께>과 영화 <신과함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0집, 2021, 117-154.
12) 박재연(2020), 앞의 글.
13)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캐릭터 구축 전략 연구 –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1호, 2018, 69~91.

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시 한번 이 각색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유는 원작의 팬들이 각색에 대해 표한 부정적 반응은 많은 연구에서 거론되었으나 그들이 제기한 물음 자체에 집중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원작의 독자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사례는 서성은의 연구가 유일하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팬덤 현상을 분석한 서성은에 따르면, “원작에 대해 강박적 애정을 가진 팬덤은 매체 전환 과정에서 원작의 스토리 세계가 변형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강박 주체로서 팬덤이 매체 전환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원작 스토리의 반복과 영속이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원작 팬덤은 각색 과정에서 스토리가 큰 폭으로 달라지면 엄청난 적개심과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팬덤 현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자유롭고 과감한 2차 창작을 향유하면서도[15] 동시에 원작 스토리에 집착하기도 하는,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팬덤 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문제제기가 일제히 하나의 지점, 곧 ‘진기한’과 ‘김자홍’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이것이 스토리 세계의 변형에 대한 일반적인 팬덤의 반응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 인물이 삭제되어야만 가능해지는 시나리오에 대한 직관적인 우려였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논문에서 ‘진기한’, ‘김자홍’ 캐릭터의 의의와 이들의 삭제가 갖는 의미를 서사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웹툰 <신과 함께>의 서사와 두 인물의 서사적 역할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영화 <신과 함께>와의 비교를 통해 두 캐릭터의 삭제와 무관하지 않은 원작과 후속작의 메시지 충돌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웹툰 <신과 함께>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물이며

14) 서성은,「매체전환 스토리텔링의 팬덤 양상 비교 연구-강박형과 히스테리형 주체의 비교를 중심으로」,『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17, Feb;17(1), 79~88.

15) 박기수,「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한국언어문화』 제36집, 2008.

이를 영화화한 작품 역시 1편 <신과 함께-죄와벌>(2017)과 2편 <신과 함께-인과연>(2018)으로 나누어 개봉된 시리즈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작의 저승편과 영화의 1편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

Ⅱ. 웹툰 〈신과함께-저승편〉의 사회비판적 서사

1. 이승과 저승

총 78화로 구성된 원작 웹툰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보이는 두 편의 서사가 이승과 저승이라는 두 공간에서 나란히 펼쳐진다. 먼저, 저승의 서사는 너무 평범해서 특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 '김자홍'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서른아홉 노총각 김자홍은 직장의 잦은 술접대, 과로와 무관하지 않은 간질환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한 인물로 등장한다. 사후에 저승으로 인도된 그는 49일 동안 일곱 번의 재판을 받는다. 이때 변호사 진기한은 김자홍의 재판을 맡아 승소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저승에서 김자홍의 재판이 차례로 진행되는 같은 시간 이승에서는 저승길에 도주한 원귀 '유성연 병장'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해야하는 저승차사들은 도주한 유성연을 뒤쫓는다. 유성연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원귀가 된 사연은 이렇다. 제대를 앞둔 어느날 그는 군복무 중 총기 오발 사고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다. 소대장은 진급을 가로막을 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살아있는 유성연을 산에 암매장하고 탈영으로 처리한다. 자신의 시체만 확인하고 저승차사들을 따르려던 차에 그는 군부대 앞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악귀로 돌변한다. 어머니는 군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1인시위를 벌이다 부대 밖으로 내쫓기고 있었다. 저승차사들은 유성연이 어머니와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악귀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다. 저승에 도착한 유성연이 첫 번째 서사에서 김자홍을 변호한 진기한과 만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김자홍의 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진기한 변호사가 다음 피고인으로 유성연 병장을 만나는 엔딩은 전체 이야기를 병렬 구조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각각의 이야기를 독립된 에피소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본 작품은 에피소드별로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한 가지 형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시시각각 교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두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서로를 방해하는 가운데 독자의 집중을 분산시킨다. 이것은 마치 독자가 한 이야기에 몰입하기보다 두 이야기 공간의 대비를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는 듯한 형식이다. 이승은 저승을 상상하도록, 저승은 이승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이승은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자 '이야기'의 공간으로, 저승은 '삶'이 없고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메타 이야기'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1) 저승 – '메타 이야기'의 공간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지은 죄업과 선행에 대해 저승시왕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설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저승관을 차용한 것으로,[16] 저승은 무엇보다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라는 윤리관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소다. 저승에서 개인은 윤리적 주체로서 신이 주관하는 재판장에 선다. 언뜻 보면 웹툰에 묘사된 '근대화된 저승'은 전통적인 저승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코믹하게 변용한 버전으로 권선징악의 세계관만큼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듯 보인다. 모든 재판이 아래 표와 같이 선악의 문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웹툰 <신과함께-신화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전통서사 <차사본풀이>의 저승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황인순(2015), 최수웅(2017), 황예진・조용상(2019) 외 다수 연구에서 웹툰 <신과 함께>가 <차사본풀이>의 저승관을 차용한 세부 내용을 검토해준 바 있다.

재판장소	판사	재판의 주제
도산지옥	진광대왕	공덕(타인에게 덕을 행하지 않은 죄)
화탕지옥	초광대왕	남의 물건을 훔친 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죄, 주기보다 받기만을 원한 죄
한빙지옥	송제대왕	불효 전문
검수지옥	오관대왕	살생, 도둑질, 음행, 음주, 망언
발설지옥	염라대왕	입으로 지은 모든 죄
독사지옥	변성대왕	살인, 강도, 강력범죄 전문
거해지옥	태산대왕	상법 전문

[표 1]

그런데 각 재판이 취하고 있는 양식, 판결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한 인간의 복잡다단한 인생 스토리에 대한 신의 정의로운 심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일련의 기계적 공정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피고인들은 여기서 할인마트의 상품처럼 무더기로 세일 처리되기도 하고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는 손과 발이 잘리는 자동기계를 통과한다. 순진하게 하라는대로 하다가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쇠톱 이빨 물고기에 먹히거나 쇠공에 짓눌리게 된다. 극소수의 선한 망자를 제외하면 이 기계는 모든 평범한 무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천운으로 이런 관문을 통과하여 재판장에 입장하더라도 그들은 인격적인 재판을 받지 못한다. 저승에는 모든 망자의 선행과 악행을 통계로 기록한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고 각종 첨단 장비, 디지털 프로그램이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근거로 선악의 여부를 자동계산한다. 여기서 한 인간의 삶은 이야기로 진술되지 않고 각종 숫자로 기록된 데이터로 제시된다.

재판장소	판사	운영 방식
도산지옥	진광대왕	떨이 - 할인마트의 폐점시간이 가까워지면 신선식품 판매원들이 버리느니 싸게라도 팔기 위해 마감 세일을 하듯이 노쇄한 진광대왕은 마감시간 즈음에 입장하는 피고인들에게 대충 무죄를 선고함.
한빙지옥 관문 업관		모든 망자들은 100% 손과 발이 잘림.
한빙지옥	송제대왕	부모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여 가슴에 박힌 못 자국의 수로 유무죄를 판단, 한빙지옥 제소자 급증으로 이미 만실이라 가벼운 죄는 무죄로 처리함.
검수지옥 관문 업강		쇠톱 이빨 물고기의 무차별 공격.
검수지옥 관문 검수림		형 확정 전 맛배기로 지나는 칼의 숲.
검수지옥	오관대왕	죄의 무게를 계량하는 기계 업칭을 사용. 기계의 저울기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됨.
발설지옥	염라대왕	인터넷 검색사이트 Joogle 의 업경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의 죄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결함.
독사지옥 관문 철환소 (거대한 강철구슬 강)		대책이 없이 건너면 쇠공에 깔려죽음.
검수지옥	오관대왕	철환소에서 길을 잘못 들면 재판 없이 바로 검수지옥에 떨어짐. 연좌제가 있음.
거해지옥	태산대왕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일 1회당 전기톱이 피고인의 몸에 5cm씩 가까워짐. 남에게 속아 피해를 본 일 1회당 3cm씩 전기톱이 멀어짐.
염라대왕의 학교 설립 계획		더 강하고 지독한 형벌을 연구하는 학교를 통해 실력 있는 검사를 양성하여 더 많은 망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려고 함

[표 2]

2) 이승 – ‘삶’의 공간, ‘이야기’의 공간

한 인간의 삶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저승과는 달리 이승은 한 인간의 삶이 이야기로 펼쳐지는 ‘이야기’의 공간이다. 이승에서 전개되는 ‘유성연 병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춘 한편의 완결된 서사를 이룬다. 이승 이야기에서 독자는 유성연이라는 인물이 원귀가 되어 저승길에서 도주할 수 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을 이

해하게 되고 그의 분노에 공감한다. 그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악귀로 변하면서 절정에 이른 플롯은 유성연이 타자의 도움으로 위로를 받고 제 자리로 돌아오며 끝을 맺는다. 독자는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입과 공감을 경험하며 수치화하거나 데이터 처리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한 인간의 삶을 인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요컨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같은 '메타 이야기'의 공간 저승과 복잡다단한 삶이 전개되는 '이야기'의 공간 이승이 시시각각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독자는 한편으로 데이터 처리되는 김자홍의 재판 중에 결코 데이터화될 수 없는 김자홍의 '이승'의 삶을 상상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유성연의 삶의 이야기에 몰입할 때 이후에 그의 삶을 데이터로 처리할 '저승'에서의 심판을 상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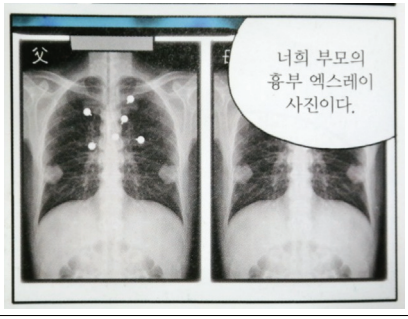
2. '평범한 김자홍'과 '비범한 진기한'

작품에서 '김자홍'의 가장 큰 특징은 '평범함'이다.

> 제 1화 (김자홍과 저승차사의 대화 중)
> 혹시 나쁜 놈이세요?
>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착한 놈이라는 확신도 안 들잖아요.
>
> 제 4화 (김자홍과 진기한 변호사의 대화 중)
> 너무 평범하게 살아와서 도무지 쓸게 없는걸요.
> 말하자면 딱히 기억나는 착한 일도 나쁜 일도 없는 [...] 인생이라는 거군요.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이 저승은 "딱히 기억나는 착한 일도 나쁜 일도 없는" 김자홍과 같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 재판도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운이 좋아 재판을 받아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선악

을 이분법적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부조리한 시스템이다. 김자홍은 자칫 인생 전체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기록되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재판에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놓여 있었다.

재판장소	주제	판결	김자홍의 데이터
도산지옥	공덕	**유죄**	초등학교 수재민돕기 쌀 기부 숙제 1회, ARS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1회
화탕지옥	절도 사기	**유죄**	주운 지갑에서 2만원 도용 장난감 절도 1회, 게임기 파손 1회
한빙지옥	불효	**유죄**	
검수지옥	살생 음주	**유죄**	술을 함부로 마신 죄
발설지옥	언행	**무죄**	탐색 결과 없음
독사지옥	강력 범죄	**무죄**	본인 및 연좌제 해당사항 없음
거해지옥	상법	**무죄**	대기업 업무 중 하청업체 납품단가를 후려친 죄 있음. 그러나 본인이 가해자인 사례 덧셈, 본인이 피해자인 사례 뺄셈으로 계산 결과 무죄 선고

[표 3]

그런데 김자홍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최종 재판까지 무사히 통과하여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것은 그의 변호를 맡은 저승변호사 '진기한'의 활약 덕분이었다.

작품에서 망자는 생전에 남을 위해 쓴 돈에 따라 저승에서 선임하는

변호사가 달라지는데 많은 베푼 사람일수록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고 남을 위해 쓴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다. 김자홍처럼 "그다지 남을 위해 쓴 기억이 없는"[17]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염라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승 입구에서 김자홍을 기다리고 있던 국선 변호사가 바로 진기한이다. 그러나 진기한은 모든 저승시왕들이 놀랄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희박했던 김자홍의 재판을 승리로 이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히 변호를 한들 재판 자체의 부조리함과 재판 외 위험요소들로부터 평범한 사람을 구해내기는 어렵다. 진기한은 변호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김자홍을 구해낸 것이 아니다. 그는 재판을 포함하여 재판 외 저승 시스템의 모든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각종 꼼수로 위기를 모면한다. 노쇄한 판관의 업무 태만을 이용하는가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재판장/관문	진기한의 전략
도산지옥	할인마트의 폐점시간이 가까워지면 신선식품 판매원들이 떨이 처리를 하듯이 노쇄한 진광대왕은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지막 남은 두, 세조를 한꺼번에 무죄 선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마지막 조로 입장함.
화탕지옥 관문 삼도천	독사들이 물어뜯는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밧데리로 독사들을 기절시킴.
화탕지옥 변론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정심에 호소하는 변론을 함. "여기 피고인을 보십시오. 창창한 나이 서른 아홉에 장가도 못 가보고 이렇게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탈모가 생길 정도로 직장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17) 웹툰 <신과 함께-저승편> 제 2화.

	업무상 억지로 마시던 술로 얻은 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빙지옥 관문 업관	모든 망자들은 100% 손과 발이 잘리는 업관을 통과한 김자홍을 위해 서천식물원에서 훔친 뼈살이꽃, 살살이꽃, 피살이꽃으로 손과 발을 다시 붙임.
한빙지옥	한빙지옥의 수용인원이 이미 초과되어 판결 기준이 완화된 사실을 이용함.
검수지옥 관문 업강	뱃머리에 자석을 매달아 쇠톱 이빨 물고기의 공격에 대비함.
검수지옥 관문 검수림	서천식물원에서 훔친 꽃을 기름으로 짠 후 로션으로 바르고 칼의 숲을 통과함.
독사지옥 관문 철환소(거대한 강철구슬 강)	염라대왕에게 빌려서 개조한 트랙터로 쇠공의 공격을 대비함.

[표 4]

처음부터 진기한의 목적은 저승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성실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기한은 저승의 변호사 양성기관인 지장법률 대학원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수의 착한 사람들만 변호하는 신장급 변호사로 발령받을 인재였다. 그러나 그는 신장급 변호사의 자리를 거부하고 저승 외곽 허름한 건물에 국선 변호사 사무소를 차린다. 그가 국선 변호사가 된 이유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구하고 싶어”[18]서였다. 이것은 소수의 착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죄인으로 생산하려는 저승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에 위배된다. 앞서 분석한 내용에서 우리는 본 작품의 저승이 인과응보의 시스템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것들을 숫자의 논리로 환원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생산하는 부조리한 “거대 기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기한은 평범한 피고인을 이 시스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죄인 생산 기계에 잔고장을 일으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18) 웹툰 <신과 함께-저승편> 제 35화.

매 재판마다 김자홍의 인생은 숫자와 데이터로 제시된다. 숫자와 데이터는 김자홍의 인생을 그 사회구조와 분리시키고 각각의 행위를 파편화된 데이터로 환원하는데 이것은 김자홍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포착하여 '죄인'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저승 시스템에 맞서 진기한은 숫자화된 인생을 다시 '이야기'로 되돌려 해당 행위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상기하는 변론을 통해 김자홍의 인생이 선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옥의 심판관은 개인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시키고 그의 행위만을 숫자의 논리로 평가하려 하는데, 진기한은 비판의 초점을 사회 구조로 이동시켜서 개인들의 삶을 포섭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과연 윤리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도록 한다. 예컨대, 거해지옥에서 판관은 김자홍이 대기업 재직 당시 납품 단가를 후려쳐 하청업체의 고혈을 쥐어짠 일이 기록된 데이터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한다.[19] 이 기소에 대해 진기한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야말로 회사의 부품이 되어 고혈을 쥐어짜이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음"을 변론한다. 또 다른 예로, 한빙지옥에서 판관은 부모의 가슴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제시하며 그 숫자를 근거로 불효의 죄를 선고하려 한다. 그 못 자국의 개수는 김자홍이 부모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횟수를 가리킨다. 그 중 하나의 못은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를 주지 못하자 어린 김자홍이 불만을 터뜨렸을 때 박힌 것이고 다른 하나의 못은 명절에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도 대기업의 과중한 업무로 명절 당일에도 부모님댁에 가지 못한 일로 박힌 못이다. 가장 큰 못은 부모보다 먼저 죽어 부모의 가슴에 박은 못이다. 이 고발에 맞서 진기한은 김자홍이 대기업 직원으로서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는가를 상기하는 것으로 변론을 대신한다. 진기한이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사교육 경쟁을 피할 수 없는 대학

19) 웹툰 <신과 함께-저승편> 제 34화.

입시의 문제 또한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컨대 김자홍의 인생은 동일한데, 숫자와 데이터로 해석된 김자홍은 가해자가 되고 그 계산 결과는 유죄가 되는 반면 진기한의 변론에서 이야기로 해석된 김자홍은 피해자가 되고 그 해석 결과는 무죄가 된다.

재판의 데이터(숫자의 논리)	진기한의 변론(이야기의 논리)
대기업 재직 당시 납품단가를 후려쳐 하청업체의 고혈을 쥐어짠 죄 ↓ 유죄: 김자홍은 가해자다	김자홍은 대기업 재직 당시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처리한 것이다. 그야말로 회사의 부품이 되어 고혈을 쥐어짜이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 무죄: 김자홍은 피해자다
부모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건수 00회 1. 부모보다 먼저 죽은 죄 2. 술을 마셔서 부모가 준 몸을 함부로 다룬 죄 3. XXX (...) ↓ 유죄: 김자홍은 가해자다	김자홍의 사인은 술병이다. 3년 전부터 증상을 느꼈지만 한번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걱정하실까봐.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다. 먹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부모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 모두가 피해자다. (...) ↓ 무죄: 김자홍은 피해자다

[표 5]

같은 시간 이승에서 전개되는 유성연의 이야기는 이승이 '이야기'의 힘이 살아있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저승에서 파견된 차사들마저 그 '이야기'의 힘에 설득되는 세계다. 유성연 병장의 사연과 유성연을 돕게 되는 저승차사들의 이야기는 이승이 저승과 어떠한 대비를 이루는가를 잘 보여준다. 저승차사들은 이승에서 죽음을 맞은 망자들을 저승으로 소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저승 시스템의 일부이며 따라서 저승 시

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와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승에서 기구한 사연의 망자를 만나게 되면 이야기로 펼쳐지는 그의 삶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유성연 병장'과의 만남이 그러한 경우다. 원귀를 소환하는 저승 시스템의 법과 규칙에 따른다면 원귀 유성연은 이승에서의 원한과 분노를 풀지 못한채 지옥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에 처해질 운명이었다. 그러나 유성연의 사연을 알게 된 저승차사들은 저승 시스템의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유성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의 사건에 개입한다. 지옥에 소환되는 날 유성연이 진기한을 만나는 장면에서 작품은 끝이 나지만 독자는 유성연이 저승의 작동 방식으로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원귀지만 진기한의 변호를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진기한은 '이야기'가 사라지고 '숫자'로만 작동하는 저승에서 필멸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의 힘으로 구원하는 인물이다. 김자홍이 최종 판결 후 환생하여 이승에서 다시 태어나는 결말은 '이야기'를 통한, '이야기'로의 구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음...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신(神) 아니세요?
> 하하하. 그럴 리가요.
> 매번 저를 구원해주시는 느낌을 받아서요...[20]

3.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은유

작품이 재현하는 저승은 김자홍이 '시민', '노동자', '가족(누군가의 아들)'으로서 선한 삶을 살았는가를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재판장이다. 소위 '현대화'를 거치면서 저승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 효율성은 다름 아닌 최단 시간에 최대 인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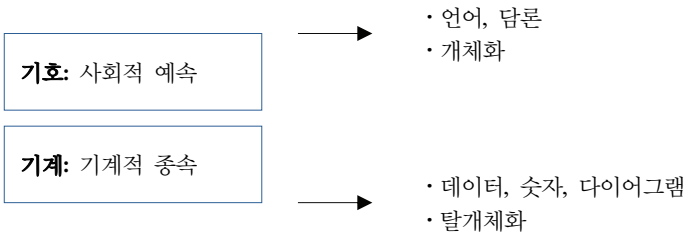
20) 웹툰 <신과 함께-저승편> 제 21화.

망자들의 유죄를 입증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효율성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투입과 산출' 방식의 효율성에 가깝다. 이 재판장의 법은 판단의 주제가 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알랭 쉬피오가 말한 '숫자에 의한 협치'의 방식으로[21] 모든 윤리적 사안들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계산되고 집행된다. '시민', '노동자', '아들' 등이 개인을 윤리적으로 주체화하는 기호들이라고 할 때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종 통계와 수치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와해된다. 이와 같은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모순적인 두 작용은 저승 시스템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두 작용은 충돌하는 대신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저승 시스템을 유지시킨다. '주체화'를 통해서는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정체성에 맞는 윤리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을 소환하고 재판장에 세우며 선과 악의 근거를 제시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를 '탈주체화'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탈주체화'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저승의 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설득당하는 개인들, 즉 주체성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우리치오 랏자라또가 『기호와 기계』[22]에서 이야기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체화 메커니즘을 상기시킨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획되는 과정은 적절한 주체성 생산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랏자라또는 이 주체화의 메커니즘을 '기호'와 '기계'의 두 층위 간 상호보완적 작용으로 설명한다. 일찍이 '사회적 예속'과 '기계적 종속'이라는 두 차원을 구분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체화 메커니즘을 수용한 저자는 이 두 차원이 맺고 있는 역설적인 관계를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사회적 예속'의 장치들이 개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종

21) 알랭 쉬피오, 『숫자에 의한 협치』, 박제성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15.
22)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기호와 기계』, 신병현,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속’의 장치들이 사회구성원들의 개체성을 해체시킨다. 이 두 모순적 작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대인의 주체성이 생산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하나의 “거대기계”[23]라고 볼 때, 이러한 주체화는 이 거대기계의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그림 1]

‘사회적 예속’의 차원은 ‘기호’들의 세계다. 언어, 담론을 통해 의미화와 재현의 망을 구성하는 이 세계에서 인간은 특정 정체성 – 성, 직업, 민족 등 - 을 부여받으며 특정 가치관, 신념을 가진 개체화된 주체 individual로 생산된다. 이 ‘사회적 예속’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시민’, ‘노동자’, ‘부모’ 또는 ‘자식’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기호’의 차원과 나란히 ‘기계’의 차원이 있다. ‘기계’는 숫자, 데이터, 다이어그램과 같은 비재현적이고 비기표적인 기호들을 동원하여 앞서 주체화된 개인들을 탈주체화한다. ‘기호’의 층위에서 독립된 개체로 생산된 개인은 ‘기계’의 층위에서 ‘가분체dividual’로 해체된다. 여기서 ‘기계’는 흔히 생각하는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공장과 같은 시스템을 일컫는 말로, 국가, 기업, 금융, 미디어, 복지 등 다양한 시스템을 가리킨다.

23) 무수한 인간들이 기계의 부품이 되어 자본주의 사회를 작동시키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루이스 멈포드가 사용한 용어, 『기계의 신화 I』, 유명기 옮김, 아카넷, 2013.

‘기계’ 층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시민’, ‘노동자’, ‘부모’ 또는 ‘자식’ 등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장이나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본, 데이터에 투입되고 산출되는 숫자, 그 숫자상에서 분할가능한 가분체로 존재한다.[24] 오늘날 이러한 기계 장치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25] 가분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쉽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체로서 살아가는 데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호/기계’ 장치는 우리를 자유로운 가분체로 살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종 욕망, 죄책감, 공포, 사적 책임을 느끼는 주체, 즉 인격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감당하며 세금을 지불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책임지고 해내는 것은 오직 ‘개인’들뿐이다. 주체성의 생산-해체-재생산의 순환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한다.

작품에 나타난 저승 시스템이 랏자라또가 분석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풍자한 모델로 볼 때 ‘진기한’은 이 시스템의 주체화 장치와 탈주체화 장치, 양쪽 모두에 고장을 내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재판장 안에서는 변론을 통해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모순성을 고발한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김자홍이 ‘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죄의 기록을 제시할 때 진기한은 이 단순한 계산법의 부조리함을 설명한다. ‘아들’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은 상충되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들’의 역할보다 ‘노동자’의 역할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진기한은 재판장 밖에서도 각종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저승의 기계 장치에 고장

24)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김, 민음사, 1997, 380~406쪽.
25)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앞의 책, 131~135쪽.

을 낸다.

요컨대 이승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은유하는 공간으로서 저승은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장치로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활용하는데, 진기한의 서사적 역할은 재판장 안밖에서 이 시스템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김자홍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평범한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화와 탈주체화의 장치에 포획당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구성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설정이다.

Ⅲ. 영화 〈신과 함께-죄와벌〉: 원작과의 메시지 충돌 양상

1. '착한 김자홍'의 가족 서사

1) 각색작에서 전면적으로 변형된 서사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원작의 전면적인 변형과 메시지 전환이 이루어진다. 영화는 원작의 주인공 '진기한'과 '김자홍' 캐릭터를 과감히 삭제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원작과 다른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였다. 영화의 주인공 '김자홍'은 원작의 주연과 이름만 같을 뿐 공통점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는 근면성실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중 고층 빌딩 창밖으로 몸을 던져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이 죽음을 지켜본 저승차사들은 그를 '귀인'으로 칭송하며 저승으로 인도한다. 일곱 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김자홍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나태지옥에서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중노동으로 일관해 온 김자홍의 삶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장애인 노모와 고시 공부하는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희생이었다. 거짓지옥에서는 죽은 동료 소방관

의 딸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믿도록 거짓편지를 쓴 일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잃은 어린 딸에게 거짓편지로라도 아버지가 되어주려는 선의에서 한 일이었다.

배신지옥과 천륜지옥에서는 김자홍이 어린 시절 가족에게 저지른 죄가 밝혀진다. 지독한 가난 속에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건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어머니, 동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다.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15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집으로 보낸 것이다. 어린시절의 이 사연은 김자홍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김자홍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배신지옥과 천륜지옥의 재판이 전개되는 동안 김자홍은 동생 김수홍이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원귀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직계가족이 원귀가 되면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는 설정으로 김자홍의 이야기에 삽입된 동생 김수홍의 사연은 원작의 유성연 병장의 사연과 겹친다. 그러나 원작에서는 우발적인 사고와 악의적인 사고 은폐에 의해 생매장당한 유성연이 특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평범한 군인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영화에서 김수홍은 군대 생활을 힘들어하는 관심병사를 보살펴주고 이어서 바로 그 관심병사의 실수로 총상을 입었으면서도 원귀가 되어서까지 그 병사를 보살펴주는 매우 선한 인물로 묘사된다. 김자홍과 김수홍 형제는 위기에 처하지만 어머니의 용서로 가족이 화해하면서 모두가 구원받으며 영화는 행복하게 막을 내린다.

2) 진기한, 김자홍과 함께 사라진 메타이야기

각색작 영화에도 이승과 저승의 공간이 등장하고, 이승은 삶의 공간으로, 저승은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원작과 동일하다. 그러나 저승이 데이터에 기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중요한 작품 의미를 담고 있었던 원작(원작 웹툰의 부제가 '저승

편’인 것에서도 드러나듯이)과 달리 각색작에서 저승은 시간적으로 죽음 이후, 즉 이승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이승과 동일하게 ‘이야기’의 힘이 강하게 발휘되는 공간으로 묘사될 뿐 별다른 특징을 갖지 않는다. 각색작에서 중요한 변형은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성격이다. 원작에서 ‘이야기’는 선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해체되는 공간이었다. 반면 각색작의 ‘이야기’는 선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강화한다(각색작 영화의 부제 ‘죄와 벌’은 이야기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강미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영화의 서사는 “모든 갈등의 요소를 가족의 문제로 집약시키고 이것을 부모의 사랑과 용서로 해소”[26]하면서 원작 웹툰의 작품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 곧 ‘가족간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력한 가족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선악을 가르는 윤리적 가치체계에서 선의 극점에 놓인다. 원작의 진기한이 저승 시스템에 고장을 내며 ‘평범한 김자홍’과 함께 해체시킨 선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은 각색작의 가족주의 서사에서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김자홍, 선한 김수홍, 선한 어머니를 통해 재구축되고 강화된다.

2. 원작이 비판하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강화하는 각색작

1차 창작이 아니라 각색을 선택하는 것은 원작과의 상호작용을 선택하는 것이다. 각색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원작을 전면적으로 변형시킨 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작을 모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원작의 요소들을 빌려 원작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겹쳐 읽기, 비판적 감상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알려진 각색’을 통해 ‘알려진 청중’과 함께 원작 ‘다시읽기’를 하고자 할 때 전면적 변형의 각색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허천에 따르면, “알려진 각색은 청중의 기

26) 강미선(2021), 149쪽.

대를 유발하는데, [...] 문제의 작품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는 청중이 되고, 그 각색된 텍스트는 [...] 우리 '기대 지평'의 일부가 된다."[27] 요컨대 각색을 통해 탄생한 작품을 논하고자 할 때 그것이 원작과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웹툰 <신과 함께-저승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차사본풀이>라는 전통서사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일종의 2차 창작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차사본풀이>에는 개인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는 인간관과 그 개인을 판단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체계가 뚜렷이 나타나있는데,[28] 웹툰에서는 그 이분법적 윤리 체계의 체계성 자체를 문제삼는 방식으로 실상 인간을 인적 자본으로 생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요컨대, <차사본풀이>와 웹툰 사이에서 작품의 메시지는 개인의 윤리성에서 사회구조의 윤리성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삼아 2차 창작된 영화 <신과 함께>의 경우 이 작품이 원작과 맺고 있는 관계는 메시지의 전복이나 전환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반동reaction[29]을 보여준다. 이것이 작품성의 수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문제의 각색작은 원작이 비판적 각색을 통해 전복시킨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복원하는데, 원작이 비판하는 주체화 장치, 즉 개인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활용되는 전통적 윤리관을 강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한다.

원작의 작품 의미를 분석한 2장의 내용을 상기해보자. 원작의 저승은 랏자라또가 이야기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개인을 인적자원으로 포획하는 메커니즘을 은유하는 공간이다. 개인individual은 기계 차원에서 탈주체화되지만 가분체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자본주의는 기호 차원에서 다시 적절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개인을 재주체화한다. '주체화

27) 린다 허천(2017), 207쪽.
28) 황예진, 조용상, 「전통서사에 반영된 저승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영화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글로컬창의문화연구』 제7권 2호, 통권 12호, 21~32쪽.
29) 진보, 발전에 역행하여 기존 질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탈주체화-재주체화'의 모순적 작용이 상호보완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한다. 우리 모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 김자홍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대기계의 부품으로 살다가 낡은 부품이 폐기되듯 죽음을 맞았지만 이 거대기계는 그에게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죄인'(죄의식을 가진 인간)을 생산하려 한다. 대기업의 과도한 업무에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 부모님댁에 갈 수 없었던 김자홍이 자신의 불효를 인정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 메커니즘이 생산하는 인간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김자홍을 유죄로 만들 데이터가 거의 모든 재판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작품은 이 죄인 생산 시스템의 작동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기계는 사회구조 속에 종속된 가분체적 삶을 그 사회환경과 분리시킨 후 가치체계를 활용하여 재주체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오직 개인에게 부과한다. 원작 웹툰은 이 기계의 속성을 드러내는 '평범한 김자홍'과 이 기계에 고장을 내는 '비범한 진기한'을 통해 우리의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다.

상술한 기계가 주체화 장치로서 활용하는 가치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한국 특유의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부모'로서의 주체성, '자식'으로서의 주체성, '남편/아내'로서의 주체성이 매우 손쉽게 생산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원작의 주인공 김자홍이 가장 불리했던 재판이 불효의 죄를 심판하는 한빙지옥이었다는 사실은 효(선)와 불효(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꼬집는다. 각색작의 서사는 바로 이 가족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사회를 바라보는 원작의 비판적 시각을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전략으로 '신파'를 채택한다.

박재연은 '신파'를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영화 <신과 함께>에서 가족주의와 결합한 신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었다.[30] 신파는 우선

‘고통을 과도하게 느끼는 주체’를 통해 출현하는데, 이 주체가 고통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일련의 동적 과정이 신파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가난을 고통으로 인식한 주체는 그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며 ‘자학’하게 되고 자기희생이라는 또 다른 고통으로 대응하면서 ‘자기연민’을 느끼게 된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회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그 책임과 고통을 완전히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고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이다. 신파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오직 신파적 주체의 아름다운 고통을 위한 무대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이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경제적 빈곤이나 군대 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에 속한 상황들은 김자홍의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한 무대로서만 기능한다. 비극성이 짙을수록 신파의 효과는 커진다. 두 아들을 둔 장애인 어머니의 극한 가난도, 쉬는 날 없이 여러 직업 활동으로 자신을 혹사하는 소방관 김자홍의 노동 현장도 오직 김자홍의 고통이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되는 데에 기여하는 무대가 된다. 여기서 사회로 향하는 모든 비판적 시선은 차단된다.

Ⅳ. 나오며

본 논문에서 우리는 웹툰 <신과 함께>의 독자들이 영화 <신과 함께>의 각색에 한 목소리로 항의했던 문제, 곧 진기한, 김자홍 캐릭터의 삭제와 관련하여 원작과 각색작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변형이 일어난 것인가를 이해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범한 진기한’과 ‘평범한 김자홍’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은유한 저승 시스템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시스템의 주체화 장치와 탈주체화 장치에 고장을 내는 역할을 담

30) 박재연,「<신과함께>의 신파성과 한국적 신파 현상 – 웹툰 <신과함께-저승편>과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에 나타난 신파성 비교를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제26권 4호, 2020.

당하는 핵심 캐릭터임을 살펴보았다.

원작 웹툰은 전통서사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저승관에 나타난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복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행위에 맞춰진 초점을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이동시키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이 개인을 인적 자본으로 생산하는 데에 권선징악의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권선징악의 프레임을 드러내는 '평범한 김자홍'과 그 프레임 뒤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고발하는 '진기한'은 작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각색작 영화 <신과 함께>는 원작의 메타이야기적 캐릭터 '진기한'을 삭제하고 '평범한 김자홍'을 '선한 김자홍'으로 교체하면서 사회비판의 메시지를 다시 개인의 윤리 문제로 되돌려놓았다. 여기서 문제는 원작에서 비판한 선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각색작의 서사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작과 각색작의 메시지가 충돌하는 이 독특한 관계는 스토리텔링의 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제공한다. 원작에서 비판하는 바, 죄의식을 생산하는 데에 활용되는 서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각색작이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분석 대상 작품

웹툰 주호민, <신과 함께>, http://comic.naver.com/webtoon/list

웹툰 단행본, 주호민 <신과 함께-저승편> I, II, III, 애니북스, 2012.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2017.

・단행본 및 논문

강미선,「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원작의 비교 연구 – <신과함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0집, 2021, 117-154쪽.

김진철,「웹툰의 매체 전환에 따른 캐릭터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 – <신과함께-저승편>을 중심으로」,『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62집, 2021, 153-182쪽.

루이스 멈포드,『기계의 신화 I』, 유명기 옮김, 아카넷, 2013.

린다 허천, 손정흠 외 옮김,『각색 이론의 모든 것』, 도서출판 앨피, 2017.

마우리치오 랏자라또,『기호와 기계』, 신병현, 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_____,『정치실험』, 주형일 옮김, 갈무리, 2018.

박기수,「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 36집, 2008.

박재연,「<신과함께>의 신파성과 한국적 신파 현상 – 웹툰 <신과함께-저승편>과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에 나타난 신파성 비교를 중심으로」,『대중서사연구』 제26권 4호, 2020.

서성은,「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캐릭터 구축 전략 연구 –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를 중심으로」,『인문콘텐츠』 제51호, 2018, 69-91쪽.

_____,「매체전환 스토리텔링의 팬덤 양상 비교 연구-강박형과 히스테리형 주체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 17호, 2017, 79-88쪽.

알랭 쉬피오,『숫자에 의한 협치』, 박제성 옮김, 한울 아카데미, 2015.

이태훈,「웹툰의 영화화 트렌드에 대한 영화산업의 대중예술성 분석연구-영화 “신과 함께(2017)”를 중심으로」,『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 16권 제 5호, 2018, 391~398쪽.

주민재(2019),「매체 전환과 스토리텔링의 관계 고찰 – 웹툰『신과 함께』와 영화 <신과 함께>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 제 61집, 2019. 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김재인 옮김, 민음사, 1997.

최수웅, 「주호민의 <신과 함께>에 나타난 한민족 신화 활용 스토리텔링 연구」, 『동아인문학』, 제 41호, 2017, 71-99쪽.
황예진, 조용상, 「전통서사에 반영된 저승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영화 <신과 함께>를 중심으로」, 『글로컬창의문화연구』, 제 7권 2호, 통권 12호, 21-32쪽.
황인순,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웹툰 <신과 함께>와 <차사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서강인문논총』, 제 44호, 2015, 353-384쪽.

・신문기사

2018.1.22. 딴지일보, “영화 <신과 함께> 진기한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나.”

Comparative Study of the Webtoon *Along with Gods* and Its Movie Adaptation: Focusing on 'Jin gihan' and 'Kim Jahong'

Song, Tae-M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two characters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adaptation in relation to the deletion of the characters Ki-Han Jin and Ja-Hong Kim, which the readers of the webtoon <Along with the Gods> protested with one voice against the adaptation of the movie <Along with the Gods>. The original webtoon succeeded in overturning the message of good and punishing evil that appeared in the hell through modern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narratives and delivering a new social criticism message suitable for our times. Moving the focus from individual behavior to the social structural environment, the message was shifted from individual ethics to social structural ethics. However, in the adaptation film <Along with the Gods>, the message is returned to individual ethics. The original webtoon criticizes the aspect in which a device such as familism ideology is used to produce an individual as a 'sinner', and the adaptation becomes an example of carrying out what the original criticizes as it is.

Keywords : Webtoon『Along With the Gods』, Adaptation, Meta story, Database, Maurizio Lazzarato, Signe, Machine, Subjectivity, Capitalism, Familism

투고일: 2023. 07. 21./ 심사일: 2023. 08. 13./ 심사완료일: 2023. 08. 14.